

기획자인 나와 세 명의 작가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시스템 아트에 관련된 책을 함께 읽었고, 그 책을 함께 읽고 난 후, <최후의 전시>라는 이 전시를 함께 만들게 되었다. 이 전시는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중 가장 큰 질문은 “기후 위기 시대의 전시의 형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였다. 5~6년 전부터 직간접적으로 기후위기를 주제로 삼은 전시들이 많이 기획되었고, 3~4년 전부터는 단시 주제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며 관련 자료를 만들고 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전시 제작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관들은 재활용 가벽을 활용하거나 운송 과정을 축소하고, 작품의 설치에 들어가는 재료를 줄이는 방법들을 고안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미술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연구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동의하듯이 기후위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탈성장’과 기존 사회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추구이다. 몇몇 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을 고수한 채로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기후위기를 늦출 수 조차 없으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탈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사회가 잠시동안 멈추거나 느리게 운영되는 경험을 했고, 실제로 그 시기 동안 탄소배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으니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주장일 듯 하다. 하지만 COVID-19의 종식과 함께 다시 뉴노멀을 기대했던 사회가 다시 노멀로 돌아가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 이후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우리 삶에 실제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기후의 변화를 매일 경험하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미술기관이 만들어가는 전시들이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며 재사용 가벽을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줄이는 등의 소극적인 방식만을 채택하여 계속 전시를 생산해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체 시스템을 바꾸자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며 비현실적인지도 인지하고 있었다.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낱 인간들인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체 시스템을 바꾸자는 과감한 주장 대신 우리가 만드는 전시의 시스템을 바꿔보기로 했다. 우리는 전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즉 공간, 작품, 설치, 운송 등의 것들과 전시에서 각각 맡고 있는 역할, 즉 기획자, 작가, 전시 진행자 등을 재고하고자 했다. 각각의 요소들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았고, 그렇게 요소들을 하나씩 바꾸었을 때 어떤 결과값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작품을 실제로 제작하지는 않은 채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만을 이야기하면서 작품의 형식과 태도를 연상시킬 수 있는 제스처로서의 오브제를 제작했다. 우리는 기획자와 작가의 역할도 고정시키지 않았다. 전시 전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의논하였고, 원하는 작품을 고수하되 그것의 형식이나 제스처 오브제의 제작들은 함께 논의하고 상황에 맞춰갔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지지대에 세 개의 제스처와 세 개의 글이 달린 모빌을 제작했다. 우리는 이것을 전시라고 불렀다. 이 전시를 제작하는 데에 넓은 장소와 어마어마한 운송/설치는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관람의 형식도 바꿔보고자 했다. 전시가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수 많은 관람객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대신, 전시를 한 명의 관객에게 전달하고 그 관객이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설치하여 오랜 시간 동안 그 전시를 관람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1주에서 2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관람객은 그 다음 관람객에게 전시를 전달할 것이며, 그렇게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설치하여 관람하는 방식으로 전시가 이어진다. 전시는 고정되지 않은 최소한의 공간을 점유하며 그렇게 끝없이 이어진다. 전시가 관람객에게 주는 어떤 효과가 공간, 물질, 시간이 어우러진 어떤 값이라고 가정한다면, 공간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며, 물질을 줄이고 이야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그 값을 상쇄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술을 사랑하며,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반드시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 다음 질문은 인간 존재, 인간의 지식, 인간의 시스템의 나약함과 불안정함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늘 헤매었고 기획자와 예술가로서 무엇을 해야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어떤 것에 관하여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고, 어떤 결정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다. 금쪽이들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었으며, 저출산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도 없었다. 일기예보는 늘 틀렸고, 감당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소식들이 미디어를 도배했으며, ‘진실’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은 말과 이미지들이 넘쳐났다. 개인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다. 내뱉은 말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관계는 늘 불안했으며, 내가 뭘 원하는지 조차도 알 수 없었다. 우리와 우리 주변에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말을 내뱉거나 행동할 수 없었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개인의 불안조차 해결할 수 없다. 종말에 관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종말이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호흡을 정리해볼 뿐이다. 그 불안 때문에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와 그럼에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불안의 상태를 반복하며, 이도 저도 아닌 모빌을 만든다. 이 모빌은 한것도 안한것도 아니다.

세번째 질문은 앞서 잠시 소개된 전시가 주는 영향의 어떤 ‘값’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예술작품 또는 전시를 보고 그것이 감동이든 감흥이든, 단순한 자극이든 간에 그것은 어떤 종합으로 다가오는 것일텐데, 그 종합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공간’, ‘시간’, ‘물질’, ‘형태’, 그리고 ‘아이디어’였다. 더 이상 무엇이 있을지 떠올릴 수 없었다. 이것들의 종합, 그리고 그 종합과 관객의 마주침 안에서 발생하는 무엇이 예술의 영향력이라면 그것들의 비율을 조금씩 달리하며 값을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다. 공간의 점유를 줄이고 시간의 점유를 늘리면? 물질의 사용을 줄이되 형태는 유지하고, 아이디어의 접촉면을 넓히면? 엄청난 공간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비슷한 효과를 가진 예술작품과 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는 다소 유치한 생각과 함께 그래도 한 번 만들어 보고, 어떻게 되는지 목격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이것의 측정은 불가능하거나 거짓 결과값을 가지기 쉬우므로, 이것을 측정해보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아마도 만들어 목격한 후에, 동료들과 잡담을 떨며 다시 혼자 생각에 잠기는 것으로 종료될 것이다.